

인도에서 현대미술의 미래를 보다

장성훈신 신창운씨 금호갤러리서 개인전

인도 전통회화 기법에 남도의 색깔 담아

노랑, 빨강, 파랑 등 원색을 즐겨 쓰는 인도 전통 회화의 기법을 따르면서도 민화로 대표되는 호남의 고유 색깔과 표현이 고스란히 화폭에 녹아 있다. 휴머니즘적 가치를 화폭에 담고 있는 서양화가 신창운(41)씨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장성훈신인 신씨는 최근 현대미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서 2년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마치고 더욱 농익은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인도의 문화를 현대미술로 승화시켜, 그 역사적 깊이만큼이나 강한 힘을 느끼게 하는 작품을 발표했다.

지난달 초순 인도 생활을 정리하고 광주로 돌아 온 그는 오는 7일까지 금호갤러리 개인전을 연 데 이어, 서울(광주시립미술관 인사동 분관 갤러리라이트·4월7일~13일), 부산(갤러리 이듬·4월15일~24일) 등지에서 잇따라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실 틈도 없이 전시 일정을 빼듯하게 짠 것은 인도에서 보고, 느끼고, 재창조된 자신의 작품을 한 순간이라도 빨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제13회광주미술상을 받으며, 작품상을 인정받은 그가 이듬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로 떠난 것도 새로운 작품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인도국립현대미술관과 인도국립갈히창작스튜디오에서 각각 1년씩 머물면서 인도 미술을 익혔다. 또 인도 북동부 지역인 비하르주 일대를 현지조사하면서 민

화의 일종인 미틸라화를 연구했다. 인도의 사상과 문화를 좀 더 깊게 성찰하면서 작품의 구성과 형식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낮선 풍경 속에서 내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인도의 신화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작품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한국에서 민화를 재해석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도의 사상과 철학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탐구하는

변신을 꾀했다. 침대 위에서 자식과 다정하게 쉬고 있는 인도의 신과, 회색빛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거대한 계단 등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오랜 전통을 승화시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도 현대미술의 성공 비법 등도 그의 공부 과제였다.

“인도미술은 기법과 재료는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지만 인도의 문화 전통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작가군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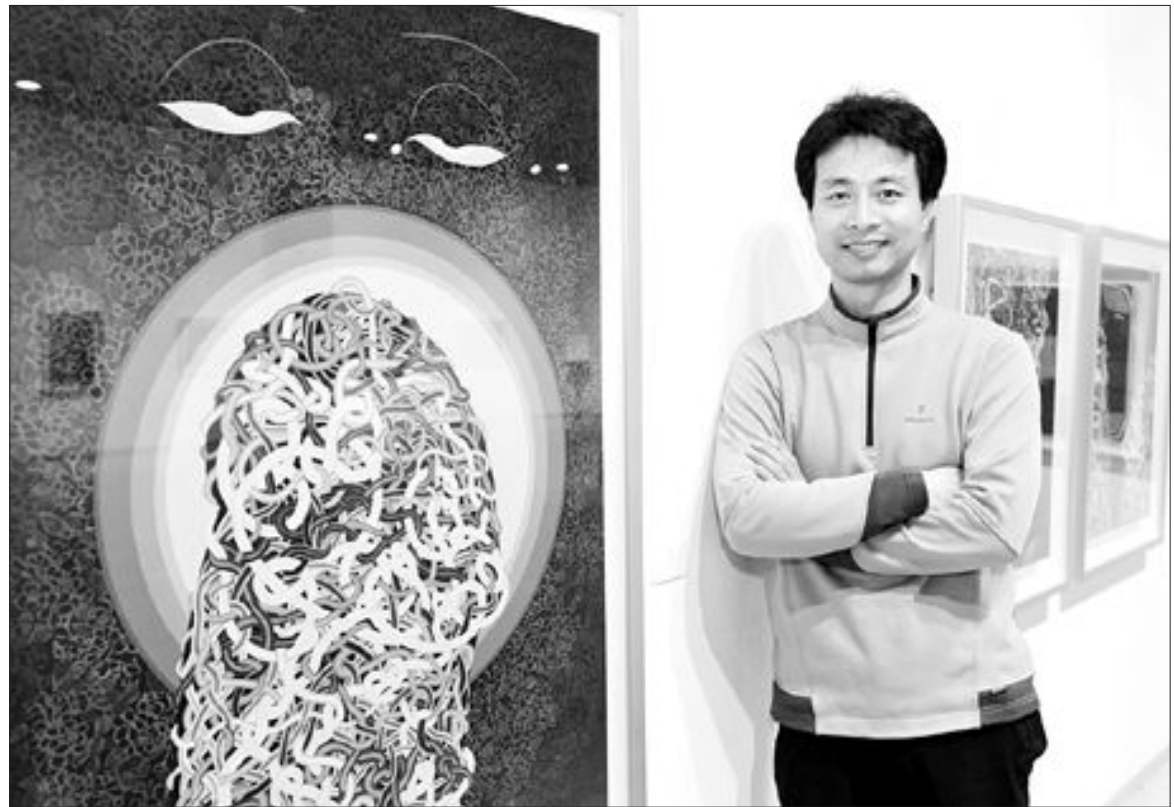
인도 화단의 호령도 이어졌다. 신을 소재로 한 인도현대회화의 모든 배경이 신화 속 풍경인데 반해, 이방인인 그의 작품 속 풍경은 호수, 숲, 공원 등지를 자유롭게 표현했기 때

문이다. 지난해 인도에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을 뉴델리 AIFACS갤러리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인도 유명 평론가인 케샤브 말릭은 이 전시에 대해 “오랫동안 우리를 매료시킨다”고 극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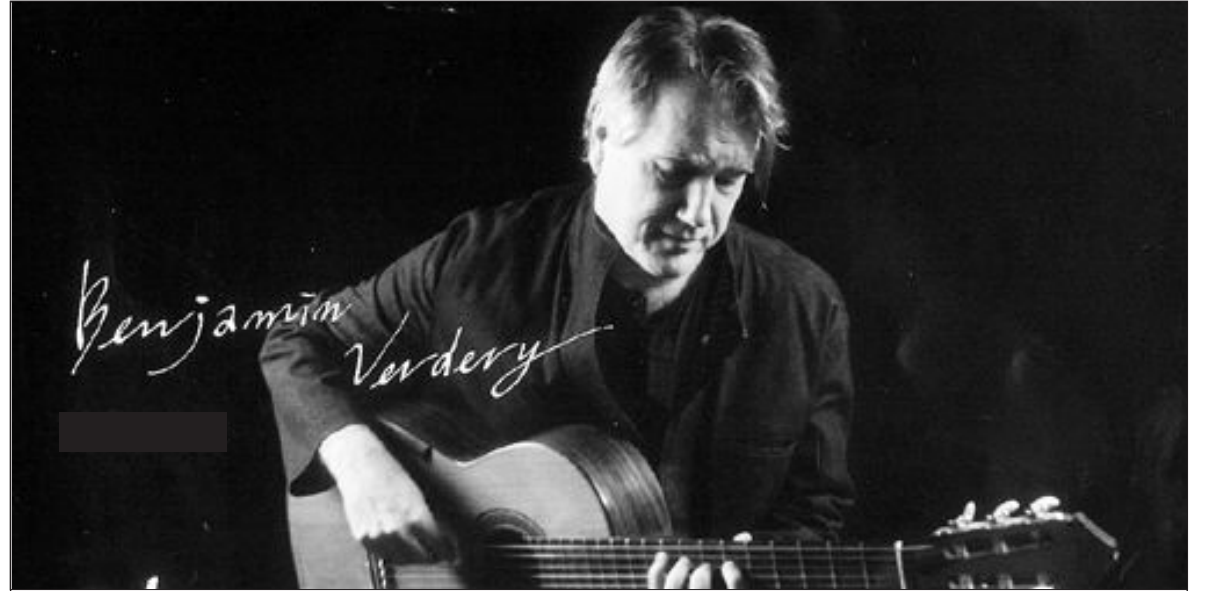
신씨는 “인도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벽을 장식하는 공허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내면의 깊이가 있는 진정한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작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광주 신세계 미술상(2003년)을 수상했으며 2004 광주비엔날레, 광주 시립미술관 기획전 ‘깊은 산중에서 소를 잃다’ 등에 참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양화가 신창운씨가 광주 금호갤러리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지에서 잇따라 개인전을 연다. 사진 왼쪽은 그의 작품 '욕망'.



광주서 만나는 명품 기타 공연

예일대 교수 벤자민 버더리 13일 문예회관서 독주회

광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외국의 유명 클래식 기타리스트 공연이 열린다.

현재 예일대 기타과 교수로 재직중인 벤자민 버더리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검은 디바’ 소프라노 제시 노만, 존 윌리엄스 등 세계적인 음악가와

협연무대를 진행한 벤자민 버더리는 정통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팝송, 재즈,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는 거장이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 역시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푸른 도나우 강’, 바하의 ‘헬로 조곡 6번’ 등 클래식을 비롯해 프린스의 ‘키스’, 엘

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인 ‘Don't be cruel’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의 ‘Purple haze’ 등을 선사한다. 또 직접 작곡한 ‘Be kind all the time’, ‘Prelude and wedding dance’ 등도 들려준다. 티켓가격 3만~1만원. 문의 031-321-89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시인협회 젊은 시인상 강경호씨

한국시인협회(회장 오택번)에서 제정한 제6회 젊은시인상 수상자로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강경호(53·시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휘파람을 부는 개’.

합평 출신인 강 시인은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문예지 ‘시와사람’을 창간, 발행인과 주간, 광주

전남현대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언제나 그리운 메아리’, ‘알타미라동굴에 벽화를 그리는 사람’ ‘함부로 성호를 긋다’ ‘휘파람을 부는 개’ 등의 시집을 발표했으며 문학평론집 ‘휴머니즘 구현의 미학’, 미술평론집 ‘영혼과 형식’, 기행에세



이집 ‘다시, 화순에 가고 싶다’ 등을 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예장동 문학의 집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시인협회는 3일 평원회의를 열고 제37대 신임 회장으로 이경청(68·한양대 명예교수) 시인을 내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 미술의 현재와 미래 조망’ 토론회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4일 오후 2시 미술관 1전시실에서 지역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미술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대미술에 있어서 지역성과 자생성’을 주제로 전남대 예술대 장석원 교수, 미술비평가 강수미씨, 광주매일신문 김영순 문화부장, 지역작가 김상연·진시영씨 등

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경쟁력 확립을 논의하고, 중국·미국의 젊은 작가들의 활동을 통해 이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 등을 모색하게 된다.

또 현대 미술의 중심과 주변의 지리적 이동과 앞으로의 전망 등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문의 062-613-714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악 무료 강습 회원 모집

우리문화예술진흥원

(사)우리문화예술진흥원은 국악 무료 강습회 회원을 모집한다.

분야는 장구·조반(매주 수요일 오후 3시)과 난타 퍼포먼스(매주 목요일 오후 3시)며 올 1년 동안 꾸준히 강습을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7일까지 선착순으로 각반 20명을 모집한다. 입학식은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진흥원 연습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523-04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니어 콘서트 오디션

4월 1~2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제1차 광주 금호아트홀 주니어 콘서트 오디션이 오는 4월 1일~2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금호영재상상부 창단’을 비롯하여 지역 음악 영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중인 유·스퀘어문화관은 광주·호남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콘서트’를 개최한다.

84년 이후 출생자로서 30분이상

독주가 가능한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부분은 피아노, 현악, 관악으로 나뉘며 준비곡목은 피아노와 현악은 소나타 1곡 전악

장, 자유곡 1곡, 관악은 자유곡 2곡이다.

오디션 신청은 오는 22일 까지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

며, 참가비는 7만원이다. 신청서는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연주자는 소정의 출연료를 받고,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연주회는 오는 7~8월, 12월 중 광주 금호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아이엘리시아는 피부의 아름다움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눈썹, 미모, 세아나 같은 로망스 행사 (300명 준비)

소모임(10명) : 10만원, 20명 : 20만원, 30명 : 30만원
대모임(30명) : 40만원, 40명 : 50만원, 50명 : 60만원

고객의 기대, 만족, 그리고... **아이엘리시아**

062-677-1199

이동통신과 고성능 인터넷의 만남 벽돌타일

검색 클릭하세요

TEL : 062) 673-9010 FAX : 010-7605-9002